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and multiple rows of TV program listings including titles and times.

“대선배와 멜로 호흡... 걱정 없었죠”

이시우 첫 주연작 ‘종이달’ 26살 차이 김서형과 로맨스 속물로 변하는 윤민재 연기



배우 이시우 /엔피오엔터테인먼트 제공

“김서형 선배님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는데, 멜로 호흡을 맞추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제가 연기한 캐릭터는 망설임 없이 직진하는 친구라서, 배우인 제가 망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지난 10일 만난 배우 이시우(24)는 첫 드라마 주연작 ‘종이달’에서 26살 차이나는 대선배와 멜로 호흡을 맞추는데 걱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우는 9일 종영한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에서 39살 기혼녀 유이화(김서형 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점점 속물적으로 변해가는 27살 영화과 학생 윤민재를 연기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고에 알코올중독자 아빠와 사채업자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민재는 떠안은 빚만 산더미다. 촬영 중 다친 친구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찾아 무릎을 꿇는데, 거기서 유이화를 처음 만난다.

은행에서 VIP 고객을 관리하는 유이화

는 통장 잔고에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는 “착악한” 노인의 돈을 윤민재에게 대신 건네고, 그렇게 두 사람은 깊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견잡을 수 없이 빠져든다.

이시우는 “대본에서 처음 윤민재를 봤을 때 비맞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유기전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는 “기밀 여객 하나 없는 세상을 혼자 헤쳐 나가려는 캐릭터가 안타깝게 느껴졌다”며 “민재에게는 어른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했는데, 이화가 그런 좋은 어

른이 돼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촬영 중 다친 친구의 병원비에 보태라고 동기들이 모아 준 돈을 거절했을 만큼 자존심이 센 윤민재는 조건 없이 베푸는 유이화를 만나 점점 변해간다. 돈의 출처는 생각지도 않은 채 호텔 스위트룸에서 룸서비스를 700만원어치 시켜 먹고, 일반택시 대신 모범택시를 타면서 유이화가 제공하는 편의를 당연하게 누리기 시작한다.

이시우는 “돈 주고 정 줬는데 돈만 받고 변했다”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다”고 멧쩍게 웃어 보였다.

돈과 사치에 익숙해진 윤민재는 결국 “내가 반짝이 피에로가 된 기분”이라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수천만원을 터럭 내놓던 유이화에게 이별을 고한다.

둘의 관계는 윤민재가 돈맛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삐끗거리기 시작하지만, 이시우는 “윤민재가 유이화를 끝까지 사랑하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민재가 속물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붕 떠 있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이화가 떠나고 나서 흘리는 눈물에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후회,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 등이 담겨 있었다”고 돌아봤다.

/연합뉴스

“산소 부족한 미래 공금해 출연 결심”

넷플릭스 ‘택배기사’ 김우빈 2071년 한국 대기오염 배경

“블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대본을 보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공금해됐습니다.”

배우 김우빈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택배기사’ 제작발표회에서 이번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택배기사’는 같은 제목의 웹툰이 원작인 공상과학(SF) 드라마로, 12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극심한 대기 오염에 산소호흡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2071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산소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택배기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우빈은 택배기사 가운데 싸움 실력이

가장 뛰어난 ‘5-8’ 역할을 맡았다. ‘5-8’은 택배기사 신분을 숨기고 생필품과 산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난민을 돕는 자경단 ‘블랙 나이트’ 소속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다.

김우빈은 “‘5-8’은 헨터라 불리는 이들의 공격을 뚫고 생필품과 산소를 전달해야 하는 택배기사”라며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5-8’은 그중에도 가장 저돌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헌은 “사막화된 서울이 배경이라 모든 것이 새로운 드라마”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승헌은 이번 드라마에서 산소를 무기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대기업 ‘천명그룹’ 후계자 ‘유식’으로 출연한다. ‘택배기사’는 영화 ‘마스터’(2016) ‘감시자들’(2013) ‘일단 뛰어’(2002) 등의 메가폰을 잡았던 조의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조 감독이 시리즈물을 연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배기사’ 제작발표회 /넷플릭스 제공

김우빈과 송승헌은 각각 ‘마스터’와 ‘일단 뛰어’ 등에서 조 감독과 함께 작업했다.

김우빈은 “조의석 감독님과 ‘마스터’ 촬영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감독님을 향한 믿음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고, 송승헌도 “감독님과 20년 이상 된 친구 사이라서 믿음이 컸다”며 신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5월 12일 (음력 3월 23일)

48년생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 60년생 활동해야 잡념을 버린다. 72년생 오늘은 용통성 있게 행동하라. 84년생 잘 챙겨 주는 벗이 생긴다.

49년생 생각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61년생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복이 온다. 73년생 가진 것은 없어도 풍요롭다. 85년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50년생 생각이 많고 답은 보이지 않는다. 62년생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74년생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86년생 배포는 크게 가져라.

51년생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려라. 63년생 양손에 떡을 쥐고 고민한다. 75년생 배물 교육 얻어 먹는다. 87년생 구설은 지나면 사라진다.

52년생 먼 거리 여행은 이득이 없다. 64년생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 76년생 자존심 버리고 도움받아라. 88년생 피로가 가득한 하루다.

41년생 귀인은 멀리 있지 않다. 53년생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65년생 절제가 필요한 하루다. 77년생 감정은 뒤로 하고 차분하게 처리하라.

42년생 상황을 가볍게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54년생 내일에만 신경 써라. 66년생 해결책은 나만이 가지고 있다. 78년생 일은 많으나 실속 없는 하루다.

43년생 장점으로 단점을 덮어라. 55년생 배풀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 67년생 비밀은 세상에 없다. 79년생 집안이 편안하니 만사가 편안하다.

44년생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56년생 무리하게 투자하기엔 시기가 좋지 않다. 68년생 고민은 나눌수록 줄어든다. 80년생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45년생 금전거래는 신중히 하라. 57년생 모두가 찬성하는 일을 하라. 69년생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 81년생 신뢰가 우선이다.

4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58년생 조금씩이라도 잘 일하라. 70년생 말을 아껴라. 82년생 음지가 양지된다.

47년생 공든 탑 무너지지 않게 언행 조심하라. 59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71년생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83년생 욕심은 금물이다.